

칠산 바다와 굴비

풍요로운 영광

강 오 식

자유기고가

굴비의 고향으로 유명한 영광(靈光)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서남단에 위치해 있고, 전라남도로 한정해서 보면 북서부 끝 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군이다. 광활한 평야와 황금어장인 칠산 바다를 끼고 있어 산수가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한 영광은 예로부터 ‘옥당굴’이라 불릴 만큼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오는 고을 수령들이 황해도 안악과 함께 부임지로 가장 탐을 내던 곳이 영광군 수 자리였다고 한다.

또한 영광군은 쌀, 누에고치, 소금, 그리고 눈이 많은 고장이라고 하여 흔히 ‘사백’의 고향으로 불려져 왔다. 이 군의 지형은 산이 잇달아 솟은 동남쪽이 높고 북서쪽으로 갈수록 농경지가 발달해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추풍령 고개에서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를 가르며 남서 방향으로 뻗어내려 온 노령산맥이 동쪽의 장성군과 남쪽의 함평군과 경계를 이룬다. 그 언저리에는 고성

산, 태청산, 장암산, 불갑산, 삼각산, 월암산 같은 높이가 500미터쯤 되는 산이 울타리처럼 줄지어 서있다.

삼국시대 이래 조선말기 까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던 영광은 21세기 들어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고속도로와 함께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개설, 영광-광주간 4차선 도로의 확장, 무안 국제공항 건설 등으로 한결 교통이 편리해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날 영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굴비라 할 수 있다. 동지나해에서 월동한 조기가 산란을 위해 추자도, 흑산도를 거쳐 연평도 근해로 올라가는데, 그 길목인 칠산 앞 바다 부근을 지날 때가 음력 3월인 곡우 사리경이다. 이때 조기는 황금빛을 띠게 되는데 이때 잡은 조기를 범성포의 특수한 기상 요건과 1년 이상 된 천일염 등 특유의 기법으로 가공하여 해풍에 건조시킨 것이 그 유명한 영광 굴비이다.

「동국여지승람」 ‘영광군’ 편에도 토산물로 조기를 들고 있을 만큼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영광굴비는 고려시대 척신이었던 이자겸이 이곳에 유배 와서 그 맛을 보고 조정에 진상하면서, 신하로서 변함없는 충성과 자기의 옳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포함으로써 그때부터 ‘굴비(屈非)’라 명명되었다고 한다.

영광굴비를 으뜸으로 치는 것은 이곳의 조기가 통통히 알을 밴 오사리 때에 잡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지방과는 사뭇 다른 ‘섭장간’의 방법으로 굴비를 만든다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알을 밴 조기를 소금물로 씻어 사흘 동안에 걸쳐서 절인다. 절일 때에는 맨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조기, 소금, 조기의 순서로 차곡차곡 쟁여 놓고 맨 위에 다시 가마니를 덮어 눌러 묶는데 소금은 하얗고 가는 것을 쓴다.

이렇게 해서 사흘 동안을 절여 두다가 알맞게 절여지면 다섯 마리씩 엮어서 걸대에 걸어놓고 두 주일쯤을 햇볕에 말린 뒤에 통보리 속에 묶어서 저장한다. 이곳 사람들이 ‘오사리 굴비’라고 부르는 이 굴비의 쫄지를 잡고 쪽 짜면 마치 마른 명태같이 살이 찢어진다.

그러나 원양어업이 성한 오늘날에는 칠산 바다 쪽으로 북상하는 조기떼를 신안군 소흑산도 근처에서 앞질러 잡아 버리기 때문에 오사리 굴비는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서울의 백화점이나 어물전에서 영광굴비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은 거개가 다 가짜이기가 쉽다. 조기를 저장하는

방법도 옛날처럼 정성을 들여서 두 주일쯤 말리는 것이 아니라 굵고 거친 청염을 뿌려 이틀이나 사흘 동안에 대충 말리기 때문에 영광굴비의 참 맛을 되찾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영광굴비의 산지 법성포(法聖浦)는 호남 지방을 들고나는 뱃길의 관문이었다. 고려시대부터 나라에서 설치한 조창 부용창이 자리 잡은 포구로 나주 영산포의 영산창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때에는 호남 지방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한양의 마포 나루까지 실어 날랐던 배나, 중국 대륙까지 가는 배가 이 나루를 거쳐갔다. 법성이란 이름은 백제에 불교를 전해 주었던 인도의 중 마라난타가 맨 처음에 들어왔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 법성포의 영화는 사라지고 말았다. 기차나 대형 화물 같은 운송 수단이 보급되고 근대식 시설을 갖춘 목포항, 군산항, 인천항 등에 밀려 옛 영광을 잃고 말았다. 또한 이곳에서 가까운 칠산 바다로 삼태기로 건질 만큼 떼지어 왔던 조기가 점점 그 자취를 감추면서 법성포는 더욱더 한적한 포구가 되었다.

영광은 백제 불교의 최초의 도래지이며 또한 원불교의 발상지로서 불갑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마라난타가 이 땅에 처음 세웠다는 절이 영광군의 진산 불갑산에 자리잡은 불갑사이다. 영광읍에서 남동쪽으로 14km 쯤 떨어진 불갑면 모악리에 있는 이 절에는 보물 제830호인 대웅전을 비롯하여 필상전, 칠성각, 요사채, 영부전, 사천왕상, 만세루 등 절간 건물 열다섯 채

와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가 있다. 이 절은 백제 무왕 때에 창건하여 1938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중수하였다고 전하여진다.

연꽃무늬, 국화무늬를 수려하게 조각해 만든 불갑사 대웅전의 문살은 그 세공이 매우 정교해 아름답기로 이름 높다. 국가 지정문화재인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팔각지붕의 다풍집으로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까지 문을 내고 조각된 문살을 넣음으로써 절집 전체가 화사한 느낌을 준다. 법당 안 불단에는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이 봉안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부처님들이 정면인 남쪽을 보지 않고 측면인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절 입구에서 작은 하천을 끼고 이어지는 잡목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돌계단이 나오고, 그 돌계단을 오르면 바로 천왕문이다. 이 천왕문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상은 조선 중기에 목각한 것으로 조선 고종 때 설두조사가 불갑사를 중수하면서 폐사된 무장 연기사에서 옮겨왔다고 전해진다. 이 사천왕상을 옮기기 위해 전 군민이 동원되어 길을 닦았다고 한다.

또한 불갑사 주변에는 상사화 군락지와 천연기념물 제112호인 참식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관광 명소로 유명하다. 상사화는 매년 9~10월에 피는 다년초로서 꽃은 홍색이며 꽃이 필 때면 잎이 없고 잎이 있을 때는 꽃이 피지 않으므로 꽃은 잎을 생각하고 잎은 꽃을 생각한다는 애뜻한 연민의 정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실봉에서 바라본 서해 낙조는 경주 토함산에서 바라본 동해 일출에 버금가는 절경으로 꼽히고

있다.

불갑사에서 불갑면 사무소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 쪽에 내산서원이 있다. 이 서원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가서도 조선 선비의 곳곳한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수은 강항(姜抗)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강항은 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모자람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영광 땅에서 의병을 모아 왜병과 맞서 싸우다 포로가 되어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는 비록 그때까지 성리학을 깨치지 못했던 일본 중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쳐 주기는 했을망정 제 나라 사람으로 끌어들여서는 그들의 강요에는 한 치도 굽히지 않았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28호인 이 내산서원의 경장각에는 그가 지은 ‘간양록’, ‘수은집’ 등이 보관되어 있다. ‘간양록은 일본의 지리와 내정을 기록한 것이다.

신안군의 임자도에서부터 전라북도 위도에까지 이르는 칠산 바다는 조기를 비롯해서 갈치, 준치, 삼치, 실뱀장어, 새우, 꽃게 등이 많이 잡혀서 옛날부터 중요한 어장으로 손꼽히던 곳이다. 이 칠산 바다 위에 뜬 일흔개 썸의 섬은 추풍령에서부터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온 노령산맥이 바다 속으로 빠져들면서 봉긋하게 솟아 올려놓은 것들이다.

거개가 달이 진다는 뜻을 가진 낙월면에 속해 있는 이 섬들은 중국과 가장 근접한 도서로 해양관광자원의 보고로 각광받고 있다. 이 섬들 중에서 생김새가 마치 안장을 찬 말이 배를 깔고 엎드린 듯 하다고

해서 그 이름도 그렇게 붙여진 안마도와 낙월면의 면사무소가 있는 낙월도, 유리와 도자기의 원료인 규석이 많이 묻혀 있는 송이도를 포함한 크고 작은 섬 열두개에만 사람이 살고 그 나머지는 무인도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조기어장으로 꼽히는 칠산도는 바위와 초목으로만 이루어진 섬이다. 이곳에는 세계적인 희귀조인 천연기념물 제389호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와 팽이갈매기, 저어새가 번식해 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섬은 일곱 개의 크기와 모양새가 비슷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 해안 지방도 경관이 빼어나다. 흔히 서해안은 갯벌이 넓어서 해수욕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곳 홍농면 계마리에 있는 가마미 해수욕장은 예부터 호남 3대 피서지의 하나로 유명하다. 병풍처럼 넓게 드리워진 솔숲과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고 모래밭이 널찍해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30만명쯤

이 몰려온다.

가마미 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은 이곳의 아름다운 저녁놀이 어화와 생선회를 오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저녁놀은 해수욕장 앞쪽에 흰히 열려 있는 칠산 바다 속으로 해가 떨어질 때면 온 바다가 불붙는 듯한 풍경으로 황홀경에 빠진다. 이밖에도 영광에는 2km에 이르는 해변을 소리 나는 모래밭으로 걸을 수 있는 상낙월도 해수욕장과 섬 주변 전체가 부드러운 흰 조약돌로 깔려있어 ‘조약돌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송이도 해수욕장이 있다.

백수 해안의 환상적인 관광도로도 영광의 명소로 손꼽힌다. 해안선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19km의 도로 주변에는 해상공원 등 갖가지 볼거리가 여행객들을 유혹한다.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해수욕과 바다낚시, 칠산도의 낙조를 함께 즐길 수 있다. ☺